

Vol. 3

# 한도인

Handong IN  
Magazine





한동인 Magazine

2015 Vol. 3

Handong IN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2회 발행되며 한동인 Newsletter는 학기 중 매월 발행됩니다.

발행월 2015. 8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기획 후원팀, 대외협력팀

글 학생기자(성연태, 김노현, 서동선, 이해정, 조희락)

사진 이완, 학생기자(성연태, 이영건)

디자인 디자인인사이트





## CONTENTS

|               |                               |    |           |                               |    |
|---------------|-------------------------------|----|-----------|-------------------------------|----|
| Special Theme | 사진으로 보는 한동 역사                 | 2  | News      | 단신모음                          | 32 |
| 개교 20주년       | 한동대 개교 20주년 기념식               | 6  |           |                               |    |
|               | 총동문회, 한동 감사의 밤                | 8  | Community | 교직원 소식                        | 38 |
|               |                               |    |           | 동문 소식                         | 39 |
| People        | ‘폴 앤 마크’ 대표, 최재웅 동문           | 10 |           | 장순흥 총장 동정                     | 40 |
|               | 외교부 아프리카 ODA 담당 정했님 동문        | 12 |           | 김영길 글로벌후원회장 동정                | 40 |
|               | 온두라스 우라고 국제학교 선교사             | 14 |           |                               |    |
|               | 심찬양 학생, 클레르몽페랑 영화제 수상         | 16 | 한동툰       | 그래, 찾아주자                      | 41 |
| Inside        | 2015 선교축제 ‘한동의 유업과 선교’        | 18 | 갈대상자      | 나의 갈-대,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나의 갈대상자 | 42 |
|               | 빛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 VAM            | 20 |           | 온누리교회 권사회 러브피스트               | 44 |
|               |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22 |           | 오순향 후원자님의 뜨개질로 전하는 사랑         | 46 |
| Focus         | 한동대,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 수상           | 24 |           | 후원자 편지 “삼십년 넘게 가지고 있던 병풍”     | 47 |
|               | 한동대, 다음세대 위한 4/14 운동 전개       | 26 |           | 후원안내                          | 48 |
|               |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인재 양성 사업 | 28 |           | 신규 기부자 명단                     | 50 |
|               | 개교 20주년 기념, 허트리오 콘서트          | 30 |           |                               |    |

## 사진으로 보는 한동대 역사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는 한동대학교!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한동대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한동대학교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동대학교의 모토인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외치기까지

과연 한동대학교는 어떤 변화(Change)를 거쳐 왔을까?

그동안의 과거 사진들을 통해 지난 20년간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 1992 -1995

한동대학교의 탄생

19920921  
학교법인 현동학원 설립허가  
학교법인 송태헌 초대 이사장 취임

19950201  
초대총장 김영길 박사 취임



19950307  
교육기본시설 준공 및 한동대학교 제1회 입학식



19951004  
무전공 무학과(부) 입학제 도입

# 1996 -2000

자리를 잡아가는  
하나님의 대학

19961021  
교육부 실시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

19970827  
권영민, 강경식 파지순교



19990223 효암관 준공



19990224  
제1회 졸업식



# 2001

시련을 통해  
더욱 하나가 된  
한동대학교

20010511  
한동대 운영 과정에서,  
학교예산 불법 전용·횡령 혐의로  
김영길 한동대 전(前) 총장  
불구속 기소



20010515

스승의 날, 한동대 학생 1500여명과  
학부모 300여명 경주교도소를 방문



20010703

김영길 전(前) 총장  
보석으로 석방

2001  
-2005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한동대학교

20010305

영문 교명 변경  
(Handong University →  
Handong Global University)



20020330

오석 학술정보관 개관  
오석 학술정보관 개관



20030722

교육부 실시  
'지방대 육성사업 우수대학' 선정

20041228

제1회 국제법률대학원(HILS)  
졸업식



2006  
-2010

유일무이  
특색 있는 한동대학교

20060518

교육부 실시 '2006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사업(NURI 사업) 선정

20070405

유네스코 '유니트원 프로그램' 주관대학 선정





200809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턴파견 협정' 체결



20090729 UN Academic Impact(유엔아카데미 임팩트) 멤버 가입



**2011-2014**  
스마트화 되어가는  
한동대학교

20111020  
UN Academic Impact (UNAI)  
고등교육역량개발 글로벌 허브  
(Global HUB) 기관 선정

20110901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첨단에너지환경학과)



20121102  
NFC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캠퍼스 서비스 오픈



20140630  
2014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  
환경·범 융합인재 양성 사업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글로  
벌 창조혁신 인재 양성 사업

2Q140201  
한동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제 1~4대 총장 김영길 박사 이임,  
제 5대 총장 장순흥 박사 취임)





# 2014-2015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대학교

## 교육부 주관 선정 사업

- 대학 특성화 사업(CK)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K)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20141216  
한동대 도서관  
UN기탁도서관 지정



- 창의융합교육원 ICT 융합전공 신설
- 국제개발협력대학원 테크노융합학과 신설( 2015 KOICA 석사학위연수 기관 선정)
- 창의융합교육원 학생설계융합전공, 글로벌융합전공 신설
- 자유학기제 시행

20150120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육성을 위한  
휘튼대학교와 협약 체결



# 3 VISION 10 PROJECT

## 한동대학교 3대 비전, 10대 프로젝트

1 인성과 영성의 융합으로 삶의 열매 맺는 한동인

2 재능 발전과 발휘의 장

3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 지역발전 프로젝트/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 통일한국 프로젝트/ United Korea Project
- 아프리카 프로젝트/ Africa Project
-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Entrepreneurship Project
- 스마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Smart Financing Project
- 차세대 ICT(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 Next Generation ICT Project
- 차세대 자동차 및 로봇 프로젝트/ Next Generation Car and Robot Project
-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프로젝트/ Sustainable Energy-Environment Project
- 차세대 의식주 프로젝트/ Next Generation Life Project
- 건강-복지 프로젝트/ Health-Welfare Project



201503025  
2015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 수상



20150118  
미래세대 복음화를 위한  
4/14 운동  
- 선교사목회자 자녀를 위한 여호수아 장학금 신설  
- 제1회 한인선교사 '계속 교육' 실시  
- 글로벌 리더십 스쿨 개최

20150530  
제2회 한동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1회 우승자 실리콘밸리 연수
- 2회 우승자 상하이, 실리콘밸리 연수





## 한동대 개교 20주년 기념식 개최

더 큰 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2015년 3월 6일 오후 2시, 교내 효암 채플에서 ‘스무살 한동’이라는 이름으로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개교 20주년을 맞아 장순홍 총장과 김영길 초대총장, 최유강 총동문회장,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여해 20주년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더 큰 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표어를 통해 지금까지 한동대학교가 20년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이정표가 된 값진 시간이었다.

기념식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한동대학교 20년간의 약사가 소개됐다. 약사 소개 후엔 김영길 초대 총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개교 2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한동대학교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굿 투 그레이트(Good to Great)’에서 ‘굿 투 슈프림(Good to Supreme)’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한 김영길 초대 총장은 앞으로도 한

동대가 영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초대 총장은 “우리의 20년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한결음, 한결음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을 믿는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교수중창단과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동의 종소리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한동의 앞날을 축복했다. 2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서는 지난 20년의 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의 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순홍 총장은 개교 및 대학 발전에 공헌한 교수, 교직원, 복지회 직원 등에게 공로패, 근속상,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김범일 현동학원 이사장은 한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지금 대학 사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 살아가자”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순홍 총장은 기념사에서 한동의 비전이 오늘날 한동을 있게 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세상을 바꾸는 3대 비전과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시작한 한동대학교의 행보가 20년 후에는 더 큰 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라고 전하며 기념사를 마쳤다.

‘스무살 한동’, 사람이라면 성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한동대학교는 이번 20주년 기념식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성년으로서의 한동대학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H)



## 총동문회, 한동 감사의 밤 개최

그 감동의 현장 속으로



2015년 5월 23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총동문회 주최 ‘개교 20주년 한동 감사의 밤’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총동문회 행사를 통해 1만 여명의 동문이 함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한동대와 총동문회의 50년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총동문회장과 정관 개정을 위한 선거로 시작됐고, 이후 감사 예배, 20주년 감사패 전달, 명예 동문 수여식, 김영길 초대 총장의 축사와 장순홍 총장의 비전 선포, 장학금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길 초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동대학교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며, 경쟁과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전 인격적 교육으로 절대적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한 차원 높은 리더십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순홍 총장은 “한동에는 더욱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동대 재학생과 동문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창업했으면 한다”고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1997년 피지에서 단기선교 중 순교한 95학번 故 강경식, 故 권영민 동문의 부모님인 강창용, 서재숙, 권정윤, 김은주 씨에 대한 첫 번째 명예 동문 수여식을 했다. 두 가정의 부모님들은 안타깝게 자녀를 잃었음에도, 한동대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한동대를 위해 다양한 후원과 격려를 이어온 점을 고려해 한동대학교 총동문회의 첫 번째 명예 동문으로 추대됐다. 한편, 이번 한동 감사의 밤에서는 20주년 기념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감사패의 주인공으로는 갈대상자 후원자를 대표해 유영춘, 양애자 씨가 선정됐다. 유영춘, 양애자 씨는 95학번 유진상 동문의 학부모이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갈대상자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3대 총동문회장으로 재선임된 최유강 회장은 총동문회를 대표해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황무지 포도밭이었던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3번지에서 개교한 한동대는 20년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후배들을 위해 등록금 없는 대학이라는 큰 비전을 꿈꾸었던 1만 동문이 오늘 장학금을 전달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동문의 많은 참여를 기원했다.

스무 살 청년이 된 한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후원의 주역은 바로 동문이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한동천사 후원이 현재 866명(2015년 6월 15일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한동대는 총동문회와 함께 졸업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문이 갈대상자 후원 바톤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H)



## True Success Makers '폴 앤 마크' 대표, 최재웅 동문을 만나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97학번 최재웅입니다. 재학 당시 경영경제학부 과정과 영어통번역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폴 앤 마크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회사는 교육컨설팅 회사입니다. 기업교육으로는 삼성, SK, 포스코 이런 곳을 컨설팅 합니다. 국제개발로는 전적으로 사회봉사를 합니다. UN, 몰도바 같은 제3세계나 에콰도르 교육부 같은 곳과 협력해서 국제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엔 '공부의 신 캠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학습법 전략 프로그램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 이름이 '폴 앤 마크' 인가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회사를 네 개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참 많이 망했었죠. 제가 세 번째 망했을 때였어요. 마크라는 친구는 저와 5년 정도 알던 외국인 친구였는데, 늘 저는 마크에게 제 꿈을 얘기 했었어요. "나는 가난한 자들과 교육을 원하는 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마크는 제가 망한 걸 알고 찾아와선 "나에게 수억 원어치의 교육 관련 지적 자산이 있으니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네 꿈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누군가에게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야. 그게 내 직업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제게 모두 전수하고 홀연히 어디론가 떠났어요. 마치 동화 같은 애긴데, 그런 일이 제게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 후 마크에게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기에 평생 그를 기억하고 싶어서 마크라는 이름을 회사명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폴 앤 마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폴 앤 마크의 경영철학이 궁금합니다.

회사 비전은 무조건 True Success Makers 이에요. 진짜 성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톨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진 잠재력, 에





너지를 끌어내 줄 수 있으면 뭐든지 해요. 그게 저희의 철학이고 다른 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철학이 회사 외부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적용해요. 저희 회사에 최근에 들어온 두 명의 신입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유난히 영어를 많이 써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는 게 회사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일 년 후에라도 다시 채용할 테니까 영어를 배우고 오라고 것이었지요. 왜냐면 지금 나이 때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평생 못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 둘은 지금 외국에 나가있어요. 누군가 성공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원칙이에요. True Success Makers.

####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이지 처음 알려진 건 청소년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슈였던 ‘공부의 신’ 캠프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폴 앤 마크는 청소년보다도 기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회사예요. 제일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교수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전국에 있는 우수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교수법을 가르치죠.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특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사고 프로세스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삼성과는 특허프로세스를 함께 개발해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특허들이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저희 회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교수법과 창의력, 이 두 가지가 저희 회사에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파트라 할 수 있죠.

#### 학창시절의 대표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학창시절에는 ‘4시간’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 하고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 아는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걸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후배들이 고민상담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얘기하다가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기숙사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에요. 전 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총장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도 스승의 날 행사를 기획해서 직접 사회를 보기 위해 교도소 앞에 가기도 하고, 학생회장에 나가기도 했고요. 굉장히 바빴죠. 하루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닌 8년동안 집에 간 날이 두 번뿐이었을 정도로요.

#### 꿈을 찾지 못하고 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꿈은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겠죠.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믿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학생이라면 지금이 무조건 믿어볼 수 있는 시기예요. 분명 꿈은 있습니다. 꿈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결정하

는 겁니다. 세상에는 떨어지지만 해보고 싶은 일,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꿈이 너무 많아요. 결정 하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꿈이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결정하면 진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될까?” 이러면 안돼요. 끝까지 믿고 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 대표님에게 한동대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 한동은 새로운 곳이었어요. 새로운 대학, 새로운 컨셉, 그리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곳. 등수가 아니라 내가 나로 증명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솔직히 학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건, 하버드를 나왔건, 한동대를 나왔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학교를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한동대를 다시 갈 겁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가셔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대는 저의 정체성의 핵심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후배들도 꼭 그렇게 느끼길 바라요.

#### 학교 선배로서 학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 번째, 한동대를 오게 된 사연은 수 만 가지가 있겠죠. 성적을 보고 왔건, 어쩌다 보니 다른 대학을 떨어져서 왔건, 아니면 정말 한동이 오고 싶어서 왔건. 사실 그건 이미 끝난 문제이니깐 심플하게 한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동인이라는 건 한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 브랜드와 정체성에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죠.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 오래 있지 말아요. 빨리 다른 길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한동에 들어왔으면 한동인이 될 것. 안 그러면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어요.

두 번째, 학교 교육 시스템, 교수님 다 좋죠. 학교는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클 수 있을 정도로 이기적이 되세요. 다만, 자신의 꿈, 본인이 펼치고 싶은 어떠한 이상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타적이 되세요. 쉽게 말해 본인이 가져야 될 실력에 대해서는 이기적이 되지만 본인이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는 이타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진심으로 후배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세요. 한 번 정한 꿈이 있다면, 학교 다닐 동안은 적어도 끝까지 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실패해도 괜찮은 삶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후배들이 행복해졌으면 해요. (H)

## 한국의 마지막 외무고시 합격자

외교부 아프리카 ODA 담당 정햇님 동문



2013년 6월 11일 발표된 제47회 외무고시(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 37명 가운데 정햇님 동문(국제어문, 05)이 외교통상직으로 당당히 합격명단에 올랐다. 한동대에서 배출한 첫 외무고시 합격생이자 한국의 마지막 외무고시 합격자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외무고시 합격 후, 정햇님 동문은 현재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개발협력과에서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업무를 담당하여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각종 협력 사업들을 심의·검토·관리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정 동문은 아프리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해외 선교사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외교관이 라는 직업은 소명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대학 시절 기억에 남는 일화로 미전도 부족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러 아프리카에 갔을 때를 꼽았다.

“당시 에티오피아 아파르(Afar) 종족을 찾아갔었는데 아직도 문명과는 거리가 먼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부족 사람들이 땅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그대로 마실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추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추장님께서 “우리도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며 제게 해답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여있던 모든 마을 주민들의 눈이 제게 쏠렸는데, 그 절박하고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돌아와 기도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눈이 붓도록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정 동문은 자신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담당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한동대가 아니었다면 아마 자신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추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특히 이분들(아파르 종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 저는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원조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외무고시 합격부터 개발국으로의 부서 배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담당이 되기까지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한동대가 아니었다라면, 저는 에티오피아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테니 오늘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꿈을 주고 기회를 주고 무엇보다 ‘배워서 남 주자’를 확실히 각인시켜준 한동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해 그녀는 매일 야근과 주말 출근이 반복되는 강행군이라고 털어놔다. 최근엔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아프리카 신규 사업들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수많은 사업 계획서들을 검토하고 부실한 사업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힘들었지만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앞으로의 비전과 본인을 통해 실현되기 바라는 소망에 대해 물었다.

“앞으로의 제 비전은 지금까지의 비전과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단12:3)’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쓰임 받아서 주님 눈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H)





##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선교사

낙후된 지역에 소망의 씨를 뿌리다

지난 2월, 한동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4명의 한동 졸업생들이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온두라스(Honduras) 우라코 국제 학교(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Uraco)에서 졸업식 가운을 입고 자신들만의 '한동 졸업식'을 치렀다. 이 한동 졸업생 4명은 교사 선교사로 자원하여 올해 온두라스에서 사역 중이다. 이 밖에도 7명의 한동인들이 교사 선교사로 우라코 학교를 거쳐 갔다.

온두라스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우라코 국제 학교는 2004년에 완공된 후 이듬해 첫 학기를 맞았다. 값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우라코 지역의 많은 학교와는 달리 우라코 국제학교는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교육과 학생복지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후원을 받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돼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느덧 개교한지 10년이 흘렀다.

2015년 한동대에 입학한 패티(Brenda Patricia Varela Diaz, GLS, 15) 학생은 우라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며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있던 패티 학생은 “홀어머니 아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 기도하던 중 한 선교사님들을 만나 그 분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학금을 받고 우라코 국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





다. 이렇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2007년엔 다른 호주 선교사를 만나 호주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호주에서 돌아온 후 2014년엔 다시 우라코 국제 학교로 돌아와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다. 교사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묻자 패티 학생은 “온두라스에는 불우한 가정과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많아요. 우라코 국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개개인을 격려하고 기회를 주려 합니다. 온두라스에는 이와 같은 열정과 사랑을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한동대와의 인연도 우라코에서 엮어졌다. 우라코 국제학교로 온 한동대 학생들에 의해 한동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번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온두라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녀는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교육 체계를 온두라스에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한때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비전을 온두라스에 돌아가 전하면서 이 나라를 바꿀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은 꼭 하고 싶어요. 저의 힘을 의지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

나님께선 큰 꿈이 있으시고 저는 그저 기쁘게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2014년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에서 봉사했던 원재는 학생(상답사회, 13)은 “우라코에도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공립대학은 모두 주말 대학교이고 캠퍼스도 없어서, 공립고등학교를 빌려 수업을 하고 조그마한 교실에 많은 학생이 몰려서 수업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의 열정을 보고 있다면 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학생들과 소통하며 지성과 인격을 겸한 교육을 실시하는 우라코 국제학교, 그곳에 있는 한동인들을 통해 온두라스를 바꿀 사람들이 곳곳에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H)



## 심찬양 학생,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에서 수상

‘이상한 나라의 김민수’ 단편영화로 심사위원 특별상

‘단편영화제의 칸’이라고 불리는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심찬양 학생. 그는 이전부터 국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학교 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해외 영화제에서 여러 경쟁작을 제치고 수상한 심찬양 학생을 만나 영화제작과정 그리고 그의 학교생활 등을 인터뷰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이상한 나라의 김민수’ 단편영화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 간단한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출품된 4000여 작품 중 경쟁작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상까지 받게 되어서 황당한 기분이 들 정도로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영화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김민수’의 간략한 설명과 촬영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나라의 김민수’는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떠났다가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주인공의 기괴한 한국 적응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근래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현실을 능가하는 아주 이상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촬영 당시 확보된 예산이 5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 배우 캐스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배우 생활을 했던 친구를 극적으로 소개 받기도 했고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조교 출신 후배를 발견하고 바로 캐스팅을 했던 일화가 있네요. 영화 제작과정에서 미국의 한 C.G 회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 영화 찍는 학생인데 좀 깎아 줄 수 없겠냐고 읊소해 썬 가격에 C.G 작업을 할 수 있었죠.





이번 영화제 수상에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수상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누구인가요?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아무래도 지도교수님이신 형대조 교수님과 같이 영화를 만든 친구들이겠죠. 교수님께서 시나리오 단계부터 편집까지 과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친구들과 몇 작품 째 꾸준히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번 영화제까지 동행하게 되어서 더 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학우님의 학교생활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생활이 있었나요?

저는 영화 작업 외에도 연극 및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1,2학년 때는 Amazing Story라는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이후에 채플에서 지킬 역으로 뮤지컬 갈라쇼를 했던 기억, 소리창조에 나갔던 기억, 작년 언론정보문화학부 학부합창대회 디렉터를 맡아 우승했던 기억이 나네

요. 또한 영화 관련해서는 자체 영화 상영회를 했던 기억,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친구와 무작정 일본으로 촬영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열 편이 넘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래서인지 교수님들께 민망할 정도로 공부를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도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학생, 교수님들, 동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열정적인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언론정보문화학부에서는 많은 콘텐츠를 만들자는 모토로 일년에 수십 편의 단편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장편을 준비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극장에서 작품으로 만나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





## 2015 선교축제 '한동의 유업과 선교' 개교 20주년, 약속의 유업 재조명하는 시간

한동에서는 매년 선교축제가 열린다. 선교축제에선 하나님이 한동 공동체에 사명으로 주신 '열방의 지경'을 소개하는 장이 열린다. 선교축제는 성경에 근거하여 선교와 선교사적 삶에 대해 한동인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선교축제의 주제는 여호수아 1장 5-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Heritage(유업)'이다.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교목실 주최로 열렸으며 2015년 Mission Festival 섬김이 팀과 교수선교위원회를 주축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교축제 주 강사인 이재환 선교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채플본관에서 복음과 선교, 한국교회의 유업과 선교, 시대와 선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식당 퇴식구에서는 선교지 정보를 제공하는 선교부스를 운영했다. 선교부스는 북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 13개 공동체의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각국의 현지상황과 단체의 내용을 홍보하였다. 각 부스에서는 각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특별히 북한 선교 부





스에서는 탈북자가 직접 북한 음식(아바이 순대, 두부 밥, 북한 국수 등)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부스 방문자들은 각 부스마다 열정적인 설명을 경청하고 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기도제목을 받는 시간을 보냈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오석관 1층 영상정보실에서 영화가 상영됐다. 영화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룬 '회복', 십자가의 화염으로 분쟁하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화해를 담은 '용서', 원시 부족 복음화에 생명을 드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끝'이 상영됐다. 또한 선교 축제 동안 교내 에스라 광장에서는 한동대 기도, 신앙, 선교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연합기도회가 열렸다. 그리고 14일 평봉필드에서는 MNT와 교수중창단, 게스트 홍이삭 동문의 문화 공연이 열려 청중들과 함께 예배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선교축제 디렉터 심명보(상담사회, 13) 학생은 “한동대학교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비전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업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업이 오히려 점점 희미해지면서, 스무 살 한동이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유업을 내 것으로 취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2015 선교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마 24:14)에 대한 소망함이 심어지기를 원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동대학교 안에서 선교의 불씨가 모이기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열방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선교축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ft)



빛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

## Visual Art Maniacs - VAM

‘빛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바로 한동대학교 사진 동아리 VAM이다. VAM은 한동대의 명실상부한 사진 동아리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각종 교내활동을 통해 학교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로 남기고 있다. 뚜렷한 개성이 넘치는 VAMer(VAM의 멤버를 지칭하는 단어)들의 리더, 기예주 회장(언론정보, 14)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VAM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VAM은 ‘Visual Art Maniacs’의 약자로 ‘빛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및 사진 동아리로 시작했고 1998년부터 사진 전문 동아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22명의 VAMER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포항 지역사회에 소외된 노인분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활동과 각종 교내 행사 시 사진 촬영, 그리고 전시회 개최 등 사진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VAM만이 하는 특별한 봉사활동이 있다면서요?

VAM은 2003년부터 재능나눔의 취지로 포항 지역의 노인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관에 직접 찾아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어르신들께서 오래 건강하시라고 장수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말한답니다. 2011년에 여러 이유로 봉사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지난 학기부터 재개됐고 지금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한 학기에 6~7회씩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학기마다 2주 동안 학관 2층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학기마다 일정한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방학에 임원들이 주제를 정하면 다른 VAMer들은 여러 차례 사진을 찍어오고, 3번의 피드백을 거치고서야 자신의 사진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3번의 피드백 과정이 아주 까다로워서 멤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이는 좋은 사진이 전시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올해 1학기 정기 전시회 주제는 '20대'였는데 주제가 다소 어렵고 추상적이라 다들 많이 고민한 흔적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그만큼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두 성취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열리는 축제 기간엔 학우들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운영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앞서 설명했던 봉사활동에서 어르신들의 사진을 끼울 수 있는 앨범과 액자를 구매하는 등의 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올해처럼 한스트, 사랑의 마라톤과 선교축제와 같은 촬영 의뢰가 들어오면 자원하는 VAMer들이 가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VAMer들은 개인적으로도 타 동아리 공연이나 프로필 사진을 의뢰받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VAMer들 대부분이 팀의 사진촬영을 담당하고 있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는 사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뛰어난 실력이 없더라도, 사진을 사랑하고 사진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VAM은 개성이 넘치는 동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살갑고 화사한 느낌보다는, 시크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VAM은 우리의 사진을 통해 많은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사진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 앞으로도 VAM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此)







##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책 속의 가르침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현장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는 선배들이 후배에게 입을 모아 마음 단단히 먹고 수강하라고 당부하는 수업이 있다. 바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이다. 정숙희 교수의 지도로 매 학기 20여 명 정도의 학생이 모이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타 대학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은 대부분 강의실 내에서 제안서 작성과 그에 대한 평가로 끝난다. 그러나 한동대학교에서는 작성과 평가 사이에 '실행'이라는 큰 산을 거쳐야 한다.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에 나가 직접 현장과 부딪히며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장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 팀은 7주간의 이론 강의가 끝난 후 직접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평균 4주가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이번 학기 구성된 8팀 중 Freedom School(자퇴생정보공유 연결고리 페이스북 페이지), 강아지폴(건강한 아동 지혜로운 습관 만들기), 노수코리아(No 殊 Korea; 탈북청소년 진로캠프), 두근두근 내 인생(영어연극지도), 독거노인케어해조(홍해지역 어르신 친구만들기)에게 이야기를 들어왔다.

'Freedom School' 팀은 미시적 접근이 아닌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 간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윤인철(상담사회, 11) 학생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달리 정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취업이나 진로 선택의 폭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기





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학업중단 청소년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로부터 편지와 격려를 받은 팀도 있었다. ‘홍해네자매’ 프로그램을 이끈 팀장 정구필(상답사회, 08) 학생이 프로그램 일자와 취업면접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서울에 가게 된 날, 할머니들께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응원과 격려를 해 주셨다. 팀원들은 “할머니들께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감동적인 일만 있던 건 아니었다. ‘노수코리아’ 팀은 프로그램 초반에 사전 검사지를 잃어버려 곤란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팀원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두근두근 내 인생’ 팀은 연극을 올리기 2주 전 아이들의 배역을 바꿔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 각각의 에피소드와 시기는 달랐지만 현장에서 생기는 변수를 팀들은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혹은 헤쳐나가며 성장해나갔다.

힘들었던 만큼 각자의 그릇이 조금 더 커진 것일까. 많은 학생들이 기획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주인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연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자신과, 클라이언트, 그리고 조원들에게 임하는 진실성이 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무엇보다 수업의 장점은 학교에서 배운 가치와 지식의 실천이다. 김민선(상답사회, 12) 학생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체험하면서도 교수님의 지

도 아래 계속 시정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현장기반 수업답게 수업시간이 융통적으로 사용돼 각 팀의 상황에 맞게 시간이 활용되기도 했다. 결과보고회를 통해서는 다른 팀 학생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수강을 마친 학생들이 앞으로 수업을 들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간단했다. “수업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간단한 한마디에 선배들이 한 학기 동안 얻은 깨달음이 담겨있었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이 Pass/Fail 과목이기 때문에 학점에 연연하지 말고 해보고 싶은 걸 시도해보는 기회를 후배들이 꼭 누리길 권했다. 또한 기관과 대상자의 연결다리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학생이 아닌 준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지적하며, 적극성과 전문적 의식을 강조하였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영(국제어문, 10) 학생은 “물론 책임의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전했다. (H)

## Focus 1

### 한동대, 대학 최초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 수상

지방대학의 한계 극복, 명문대로 발돋움한 성공모델.

한동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포스코청암상 교육상을 수상했다.

한동대학교는 3월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 9회 2015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에 참여했다. 한동대는 청암교육상 부문으로 청암과학상에 박배호 건국대 물리학부 교수, 청암봉사상에 인도네시아의 비나 스와다야 재단과 함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등 역대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2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이 1971년에 설립한 제철강 학회로부터 비롯된 장학재단으로 박 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창의존중’, ‘인재육성’, ‘희생봉사’를 위해 힘쓴 개인과 단체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 각 수상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5개월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1995년 기독교적 정신 아래 개교한 한동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수정예 밀착형 교육으로 지방 소규모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한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한동대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과 지방에 위치한 불리함을 딛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학생 선발(수도권 34%, 경상권 27%, 전라권 12%, 충청권 12%, 해외 13% 등)로 지역간 인재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한동대 신입생은 1년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전공 기초과목과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을 찾는 기회를 가진다.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모든 학생들은 적성에 따라 12개의 학부를 성적과 인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복수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 인접 학문간 연계 교육을 통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한동대는 아시아 최초 미국식 국제법률대학원(HILS)을 운영하고 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정(GM, IT, UIL)을 통해 국제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2011년에는 UN아카데미임팩트(UNAD)의 고등교육역량개발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한동대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동대는 개교 때부터 20년간 ‘한동 아너 코드’라는 이름으로 무감독 양심시험을 실행 중이며 사회봉사활동을 필수 교과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새내기 섬김이’와 같은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은 한동대만의 자발적인 공동체적 인성교육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다.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이번 포스코청암상 수상은 매우 영광스런 일”이라며 “한동대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여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㉔



### 한동대, 다음세대 위한 4/14 운동 전개

복음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육성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 3%, 기독교 인구공동화가 예상되는 현실 가운데 복음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육성을 위해 한동대학교가 발벗고 나섰다. 한동대는 부산 수영로교회, 미국 휘튼대학교, 경주제일침례교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4/14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14 운동은 하나님을 알고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4-1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양성하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또한 의식 있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역량 있는 대학의 공동 협력을 통해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기독교적 가치의 선한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청소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대는 지난 1월 18일, 수영로교회에 이어 5월 3일, 경주제일침례교회와 4/14 윈도우 운동의 확산을 위한 협력,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협력, 청소년 교육과 대응 문화 창출에 대한 협력, 그리고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육성에 관한 협력을 공동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양 기관은 모든 역량을 결합하여 통합적인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 세계에서 언어와 문화를 뛰어 넘어 성경이 없는 곳에는 성경 번역과 같은 활동을, 성경이 있는 곳에는 성경이 개인과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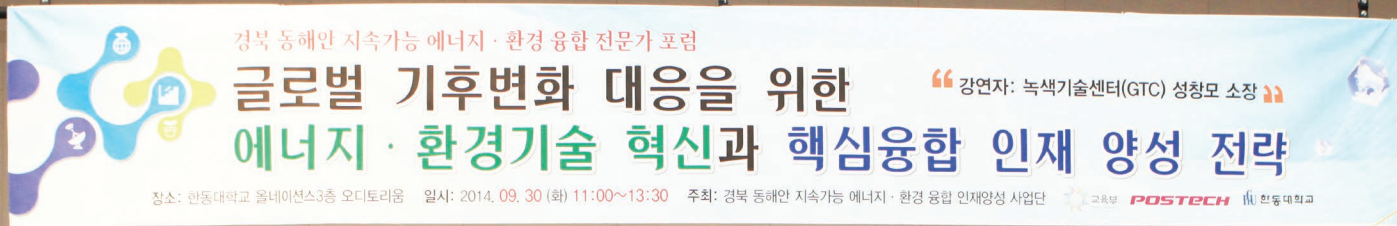
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 세상 문화에 대응하는 기독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에는 미국 휘튼대학교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독교 사학인 두 대학은 학생·교수 교환, 미국 교사자격증 프로그램 협력,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수업 데이터베이스 공유 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한 4/14 운동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4/14 윈도우 한국연합 주최로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제 6회 4/14 윈도우 포럼'이 열렸으며, 이 날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4/14 윈도우 한국연합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장 총장은 "많은 교회, 대학들과 함께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발굴하고,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14 윈도우 운동에 많은 교회와 학부모들이 동참해 대한민국의 변혁 운동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







## 한동대,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

2014년 6월 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한 대학 특성화 사업 지역전략분야에서 한동대는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Convergence Education for Sustainable Energy and Environment, 이하 CESEE)'으로 선정됐다.

한동대 CESEE 사업단은 포스텍과 협력하여 에너지-환경 융합교육, 에너지-환경 미래 Co-Creation, 에너지-환경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공학적 효율증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환경 문제의 복합성을 해결하며, 에너지-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기술 간 융합인재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법 융합역량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환경 산·학·연·관 및 시민단체와 교육-산업-사회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융합교육의 현장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에너지-환경 산업의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법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 발족식 및 포럼'이 한동대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으며 30일부터 31일, 한동대 오석관에서 이틀에 걸쳐 '2014 한동대학교 에너지-환경기업 취업한마당'이 열려 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사업단이 주최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술-법 융합 콜로키움 행사'를 한동대에서 개최해 기술-법 융합과 관련된 상호 토의와 사업단 내에서 진행 중인 연구 주제와 진척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기술-법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업단 내 에너지-환경 기술법 시범센터(ESTC)는 지속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왔다.





올해 1월 20일에는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 인재 사업단 내 융합교육센터(이하 RICE)가 주최한 제1회 차세대 에너지-환경 융합 컨퍼런스와 제1회 에너지-환경 캡스톤 경진대회가 경주 드림센터에서 열렸다. 특별히 에너지-환경 캡스톤 경진대회는 에너지-환경 융합 비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사업단에서 진행한 학부생 연구지원 및 동아리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학생들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뽐내며 서로의 지식 정보를 교환했다.

사업단 내 지역창업센터(LEC)는 교육부의 후원 아래 동계방학 단기 창업교육캠프를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열었다. 에너지-환경-기술-법 융합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한동대와 포스텍은 에너지-환경 공학 아카데미를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포스텍 환경공학동 및 청암학술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역연계센터 및 지역현안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환경 지역기업 기술협력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지정연구실 운영을 통해 에너지-환경 분야에 특화된 산학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융합교육센터와 관련 시범센터를 둬으로써 에너지-환경, 기술-법 융합 인재 양성과 연구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㉔



## Focus 4

### 개교 20주년 기념, 허트리오 콘서트

눈으로 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음악여행.

2015년 4월 30일 오후 7시 30분, 한동대학교 채플본관은 허트리오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의 들뜬 북적임이 공간을 메웠다. 관객 중에는 특히나 어린이들이 많았다.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허트리오 콘서트는 음악을 귀로 감상하는 동시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뮤직 애니메이션 머신(Music Animation Machine)으로 관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감동을 선사했다.

구형 폭스바겐 손잡이로 제작된 뮤직 애니메이션 머신은 뮤직 애니메이션 개발자 스티븐 밀리노프스키(Stephen Malinowski)가 개발한 도구로, 머신을 음악의 흐름에 따라 돌리면 대형 스크린에 각기 다른 도형의 모양과 색상이 움직인







다. 대형 스크린에 뜬 이 애니메이션 악보는 음악의 강약, 리듬, 음표의 고저, 음악에서 느끼는 감각 등을 다채로운 도형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누구나 찾아갈 수 있듯이, 청중들이 음악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음악을 도형으로 시각화하고, 음악에 맞추어 도형의 흐름이 변한다. 음악의 시각화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클래식이 관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누구나 음악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국내 및 해외에서 각각 솔로리스트와 앙상블로 활동하고 있는 허트리오(피아노 허승연, 바이올린 허희정, 첼로 허윤정)의 라이브 연주에 시스템아 유럽 'Superar Suisse' 설립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및 지휘자인 에티엔 애벌린(Etienne Abelin)은 뮤직 애니메이션 머신으로 함께 호흡하였다. 이날 연주로는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3중주 No.2 E 단조', 피아졸라 '사계' 및 '망각' 등이 있었다.

뮤직 애니메이션 공연은 음악에 대한 해설과 시각화가 곁들여져 오감과 상상력을 자극했다. 또한, 3D 안경으로 관객들이 스크린을 입체감 있게 보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실재적으로 음악을 접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청중을 무대 위로 초대하여 라이브 연주에 맞춰 손잡이를 돌려보는 참여의 기회도 제공했다.

애벌린 씨는 "뮤직애니메이션을 더 발전시켜서 개인이 직접 클래식 음악을 고르고 3D나 4D에서 모양으로 음악을 창조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이날 공연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직접 뮤직 애니메이션 머신을 체험했던 15학번 김한솔 학생은 "박자에 따라 도형을 맞추면서 애니메이션 머신을 돌리는 것이 오투잼이란 게임 같았어요. 박자가 빨라지면 빨리 돌려야 되고 느려지면 느리게 돌리면서 음악을 따라간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초등학생인 박요셉 군은 "스크린의 이상한 그림이 움직이고 갑자기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한 것이 평소에도 많이 못 보던 것이어서 신기했어요"라며 독특한 공연에 소감을 전했다.

뮤직 애니메이션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새로운 창의 음악교육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인 연주회의 틀을 깬 새로운 뮤직 애니메이션 공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 IN)



### 장순홍 한동대 총장, 케냐와 르완다 방문. “한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청년들의 해외 창업과 국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케냐 나이로비와 르완다 키갈리를 방문했다.

장 총장은 현지 한국 대사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와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르완다 현지 대학 총장, 현지 한국 기업 대표, 르완다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서 현지 창업 현황과 사례, 기업가 정신 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총장은 지난 16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르완다-한동 창업·기업 가정신교육 센터’ 선포식에 참석하여 그 시작을 알렸다. 이 센터는 한동대 학생·동문들과 한국 청년들의 글로벌 현지 창업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센터는 개발도상국의 미래 지도층인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국제개발 NGO 관계자, 전문직 종사자, 사업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개발도상국 국민 스스로 경제개발의 주체가 되어 정직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토록 가르치며 이런 기업이 자생적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장 총장은 케냐 나이로비 대학 총장과 만남을 가지고 현지 창업지원 센터 공동 운영 방안과 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동대는 지난 1월에 장 총장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현지에 진출해 있는 동문기업 NIBC, 코트라, 코이카, 현지 한국인 기업 등과 협력해 올해 말까지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엠립, 태국 방콕 등에 국외 창업 센터 5개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제2회 유엔 아카데미팩트 서울 포럼 개최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초대총장)는 지난 5월 20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회 유엔 아카데미팩트 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11년 8월에 개최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계시민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엔 아카데미팩트 등의 역할과 유엔 아카데미팩트 대학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엔 아카데미팩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출범시킨 국제교육 협력 협의체로, 유엔과 전 세계 고등교육 기관들이 함께 제휴하여 다양한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을 주 엔진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반기문 총장의 기조연설, 이홍구 전 총리, 이리나 보코바 총장, 제프리 삭스 교수의 축사, 유엔 아카데미팩트 가입 국가(케냐, 콩고, 아이티, 리투아니아, 아랍에미리트)의 교육 대표들의 연설, 토론 세션, 폐회사 순서로 진행됐다.

오준 유엔대표부 대사, 윌리엄 가우델리 미국 콜롬비아 대학 부교수, 김영길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 회장, 얀 토마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 장순홍 한동대 총장, 갈림카이르 무타노브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카작 국립 대학교 총장 등이 연설자로 나섰으며, 마허 나세르 유엔 공공정보 총괄 디렉터와 라무 다모다란 유엔 아카데미팩트 국장의 연설로 마무리 됐다.

한동대는 지난해 1월에 ‘유엔 아카데미팩트’의 ‘글로벌 허브 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현재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영길 한동대 초대총장은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 한동대, 국내 대학 최초로 자유학기제 시행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이 재학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정하여 수업을 받는 대신 기업, 기관, 해외대학 등에서 자기주도적 활동을 수행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장순홍 총장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현장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장 총장은 학생들이 산업체와, 지역사회, 해외 현장 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실 사회와 학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일자리와 수업의 연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제 1회 한동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5명의 학생을 3개월 간 실리콘밸리로 파견하면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점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실리콘밸리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학점 인정을 받았다.

자유학기제는 정부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다양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이 배경에서 한동대가 자유학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교육에도 혁신적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 체험과 참여 위주의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습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비전 탐색과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등 자기계발에 나서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활동, 프로젝트 수행, 해외대학 교육, 해외봉사, 언어습득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유학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사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다. '자유학기 학점인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신청서와 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이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과정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학생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방침이다.



### 한동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20억 지원 받아

한동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올해 20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확산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으로 한동대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 창출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밀착 산학프로그램 발굴 및 정착, 사물인터넷/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산학협력 신 분야 개척, 지역밀착형과 글로벌진출형 산학협력 동시 추진, 글로벌시장/로컬시장 동시 지향 창업시스템 구축, 디지털경제 패러다임에 의한 사회 혁신 기업 지원, 전통산업과 사물인터넷/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의한 혁신창조경제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장순홍 총장은 "한동대의 산학협력 모델은 지역밀착과 글로벌 진출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반 특성화를 통하여 시너지를 높여서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더욱 온전하게 구현하는 모델이다"며, "한동대의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 성공적 모범 사례로 정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총장은 "한동대의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 성공할 경우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될 것이며, 글로벌 창업과 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반 창업의 특화 전략을 추구하는 창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대는 한동 스타트업 경진대회(실리콘밸리 창업 프로젝트) 개최, 창업교육전공(GEA) 운영, 전산전자공학부의 대학·기업 협업 캡스톤 프로그램(C4) 운영, 기계제어공학부의 '현대자동차 그룹 자동차트랙' 교육과정 운영 등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한동대, 라오스에서 '국제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교육부와 한동대학교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소재한 라오스국립대학과 협력하여 지난 2월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라오스 지식인층 160명을 대상으로 국제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라오스국립대학에서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유일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대학인 한동대가 2008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케냐, 몽골, 캄보디아, 가나, 페루 등에서 13차례 열었고 1,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미래 지도층(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국제개발 NGO 관계자, 전문직 종사자, 사업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개도국 국민 스스로 경제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우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가치관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도록 도우며 이리 한바탕에서 이뤄진 창업을 통해 자생적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과목은 기업가정신의 사고방식, 기업가정신 및 창조적 혁신의 영향, 재무, 회계, 자본 창출, 창업 및 효과적인 사업계획, 기업가적 법과 윤리, 지적 재산권, 다국적 기업,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이며, 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4시까지 강의,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소그룹 활동시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룹별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수요일 오후에는 '문화의 밤'을 개최하여 참가자 간의 유대 관계를 높이고 민속의상쇼, 전통음악과춤, 개인장기자랑의 시간을 통해서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사업계획서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각 그룹이 발표하고 그중 우수 3그룹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개도국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기업윤리를 갖춘 건강하고 열정 있는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어 라오스의 경제발전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한동대, 코이카와 장기석사과정 업무협약... 개도국 인재 양성

한동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개발도상국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4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장순홍 한동대 총장과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지역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석사학위 전기전자 및 ICT 융합기반 창업 연수과정'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한동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 현직 공무원 20명을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전기전자 및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에 기반한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주도해 나갈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이 연수과정은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토론 중심의 세미나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국내의 ICT 및 창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산업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연수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ICT융합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ICT산업을 육성하여 자생적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정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장(경영경제학부 교수)은 "이번 장기 석사학위 과정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균형 있는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지역 리더 및 정책 개발자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동대, 2015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보고 및 평가회의 개최

한동대학교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유니트윈(UNESCO UNITWIN) 주관대학 사업 보고 및 평가회의」(주제: 개발도상국 지속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육협력)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동대학교 유니트윈 사업의 지난 5년간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여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본 행사는 한동대 김영길 초대총장과 장순홍 총장의 개회사와 이병석 의원, 설훈 의원, 유기홍 의원, 박대동 의원의 축사로 시작했다.

장순홍 총장은 개회사에서 2007년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대학으로 지정된 한동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유니트윈 사업을 포함한 국제개발 분야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대학교 유니트윈 사업은 26개 개발도상국의 49개 대학 및 기관('15년 3월 현재)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다년간 국내 주요언론에서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주로 개도국 대학 역량 강화와 지도자 양성 등의 국제개발협력 실천에서 기인하였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동대학교는 세계은행(World Bank)가 분류한 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우리정부의 중점협력대상 개도국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역량강화, 지도자 양성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개도국 내 지역 거점센터를 구축해왔다.



### 한동대, 2015 세계교육포럼 참가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의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이하 ‘유니트윈 사업단’),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이하 ‘지역전략 특성화 사업단’)과 ‘ICT 기반 글로벌 창조혁신 인재양성 사업단’(이하 ‘국제화 사업단’)이 지원하는 UNAI ASPIRE Korea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세계시민교육 전시에 참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세계교육축제로 195개국 교육장관,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시민단체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 행사의 부대행사로 옥외전시장에서 ‘생각하고, 공유하고 행동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시민교육 전시회에는 정부와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사회 부문 39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했다.

한동대 유니트윈 사업단, 지역전략 특성화 사업단, UNAI ASPIRE Korea는 각각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유니트윈 사업, 지역전략 특성화 사업, UNAI활동을 소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했다. 유니트윈 사업단은 국내·외 교육 관계자, 대학 총장 등 세계교육포럼 참석자 및 전국 각지에서 전시회를 방문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한동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을 소개했다. 유니트윈 사업은 월드뱅크(World Bank)가 분류한 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우리정부 지정 중점협력대상 개도국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의 역량강화, 지도자 양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개도국 내 지역 거점센터를 구축해왔다. 전시장을 찾은 에라도르 대사관 소속 이시스 끼뇨네스(Isis Quiñones) 행정관은 “한동대의 유니트윈 사업이 고등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동대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역전략 특성화 사업단에서는 융합인재양성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 융합교육(에너지시스템 융합교육트랙, 에코스페이스 융합교육트랙) ▲기술·법 융합교육(지적재산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아울러, 지역 에너지·환경 기업과의 기업 지정 연구 성과,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캡스톤 경진대회 성과, 인턴십 우수 사례, 교과과정과 연계한 융합 연구 및 융합 전공 동아리 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은 한동대는 포항공대와 협력하여 지난해 7월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지역전략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전략 특성화 사업단은 교육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동대와 연구 분야에 강점을 가진 포항공대가 협력해 선정된 최초의 국가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단에는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국제법률대학원(HILS)과 포항공대 화학공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서영 한동대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스를 방문한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교육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한동대의 독특한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전략 특성화 사업단과 같이 지난해 7월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국가지원 국제화 분야에서 선정된 국제화 사업단은 경영경제학부, 국제어문학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이 참여하여 ICT를 활용한 국제화 및 창조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화사업단은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여러 명의 학생이 협력해 현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실습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기업 탐방 및 체험사업, 국제기구·국제지역 연구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한동대, 핀테크 캠퍼스 구축에 날개를 달다

한동대학교는 5월 21일 한동대 서울사무소에서 KT, 스마트로와 핀테크 캠퍼스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 서기홍 KT 경복법인단장, 여재성 스마트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한동대 핀테크 인프라를 활용한 핀테크 신사업 모델 발굴, 핀테크 인재양성을 위한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핀테크 창업 컨설팅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핀테크 기술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한동대와 협약기업은 핀테크 관련 이론 및 실습 교과과목의 공동 개발 및 수업 운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에게는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정 참여 기회가 제공 된다. 또한, 핀테크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및 창업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핀테크 창업 공동투자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핀테크 관련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구축으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전망이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동대는 이러한 핀테크 친화적인 캠퍼스를 구축하여 핀테크 신사업 창업 및 핀테크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의 배경에는 한동대의 핀테크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 한동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일본 와세다대,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27개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한동대를 방문한 바 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RFID, NFC, 사물인터넷, 핀테크와 같은 트렌드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며 사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총장은 “이번 한동대 핀테크 캠퍼스 구축으로 학생들은 핀테크 기술을 보다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된다”며 “앞으로 한동대에서 페이팔, 테슬라와 같은 첨단기업을 창업한 앨런 머스크와 같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대-한국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세미나 공동개최

한동대학교는 지난 6월 2일 교내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움에서 교수와 학생,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한국은행 등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스마트 금융과 지역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동대 개교 20주년과 한국은행 창립 65주년을 맞아 두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현대HCN경북방송이 후원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IT와 금융 융합의 확산의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지역금융의 활성화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순흥 총장은 개회사에서 “교내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금융 환경을 만들고 싶다. 또한, 포항의 많은 기업들이 근거리무선통신(NFC)와 핀테크(Fin-Tech)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행 이흥모 부총재보는 축사에서 “지금 세계는 금융과 IT가 결합한 금융 테크놀로지의 확산으로 금융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며 “스마트 금융이 낮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스마트 금융 시대의 도래(Social Innovation and Finance)>, <금융산업의 정책과제(Smart Financing and Policy Proposal)>라는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종합토론과 짧은 질의응답을 끝으로 약 두 시간에 걸친 금융 세미나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됐다.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 한동대, 제1회 한인 선교사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최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가 개최한 '한인 선교사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교내 효암별관 2층에서 열렸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한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선교 활동을 위한 영적, 지적 재충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50여명의 선교사와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예배로 시작되었으며 장순홍 총장은 환영사에서 "저와 우리 교직원들은 이번 한동대에서 처음으로 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은 우리 한동대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자리에서 선교사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준비한 '한인 선교사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선교사를 섬김으로써 세계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순홍 총장의 '익명의 선교사 일으키기 운동'이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현직 베테랑 선교사와 한동대 교수가 나서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지 지역연구', '선교와 문화인류학', '전략적 선교와 선교사의 정체성', '전략적 선교와 선교지역연구', '타문화권 학교사역'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임종표 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다양한 재교육으로 충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절실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한동대 미주후원회, 발전기금 5만 불 전달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동대 미주후원회 진금섭 회장은 미주 지역에서 모금한 장학금과 발전기금 5만 불(한화 약 5,500만원)을 지난 6월 23일에 워싱턴을 방문한 장순홍 총장에게 전달했다.

장 총장은 "1998년에 세워진 미주후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한동대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동대와 동행하며 후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미주 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1995년 개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동대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한동대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유능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을 보며, 한동대 미주 후원회로서 큰 보람이 있었다"며 "개교 2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미국에 진출한 한동대의 졸업생들과 함께 한동대 미주 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장 총장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며 월드뱅크(WORLD BANK)와 IMF 등을 방문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6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제20차 북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대회에 참석하여 '복음 전도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장 총장은 방미 기간에 뉴욕과 워싱턴 동문회를 방문하여 졸업생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美 변호사 시험 19명 합격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졸업생 19명이 지난 2월 미국에서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 중에 18명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명은 뉴욕 주에서 합격했다.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실시되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지난해에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2월에 실시된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의 전체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37%이다. 이는 지난해 2월에 실시된 시험의 합격률보다 약 10% 가량 낮아진 수치로 지난해보다 시험이 어려웠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이번 시험에서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미국식 로스쿨을 표방하며 2002년도에 개원했으며, 졸업생 중 약 70%에 가까운 284명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는 미국 로스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의 합격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법 분야 명문 로스쿨로 발돋움해왔다.

교수진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과정은 미국식 로스쿨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재학 기간 동안 정부 부처, 대검찰청, 대법원, 국내·외 로펌, 기업 등의 인턴십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반영하는 능력도 동시에 배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변호사 배출뿐만 아니라 국제적 법조인 양성의 결실도 나타나고 있다. 졸업생들이 소정의 현지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 응시 절차를 통해 인도,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명실상부한 국제적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교직원 소식

## 교원 보직발령

발령일 2015.2.1

| 보직명                                              | 교수명                           | 소속         |
|--------------------------------------------------|-------------------------------|------------|
| 입학·인재개발처장                                        | 제양규                           | 기계제어공학부    |
| 경영경제학부장/<br>일반대학원 경영경제학과 주임교수/<br>경영경제연구소장       | 성현모                           | 경영경제학부     |
| 기계제어공학부장/<br>일반대학원 기계제어공학과 주임교수/<br>첨단기계기술연구소장   | 김재효                           | 기계제어공학부    |
| 산업정보디자인학부장/<br>일반대학원 문화미디어디자인학과 주임교수/<br>디자인연구소장 | 이진구                           | 산업정보디자인학부  |
| 전산전자공학부장/<br>일반대학원 정보통신학과 주임교수/<br>정보통신기술연구소장    | 박영춘                           | 전산전자공학부    |
| 글로벌리더십학부장                                        | 이한진                           | 글로벌리더십학부   |
| UIL과정 주임교수/통일과평화연구소장                             | 원재천                           | 국제법률대학원    |
| 교육대학원 학생지도 주임교수                                  | 이은실                           | 교육대학원      |
| 일반대학원 첨단그린에너지환경학과 주임교수                           | 홍경희                           | 일반대학원      |
| 교목실장 직무대리/<br>교목실 신앙교육원장 직무대리                    | 김형겸                           | 교목실        |
| 글로벌창업센터장                                         | 강신익                           |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
| 한동혁신융합소프트웨어센터장                                   | 김인중                           | 전산전자공학부    |
| 창업보육센터 부센터장                                      | 김영근                           | 기계제어공학부    |
| 공학교육혁신센터 전자공학심화 PD                               | 조윤석                           | 전산전자공학부    |
| 카마이클 College Headmaster                          | Nicholas<br>Scott<br>Lantinga | 국제어문학부     |
| 카이퍼 College Headmaster                           | 조원철                           | 산업정보디자인학부  |

발령일 2015.3.1

| 보직명                        | 교수명         | 소속         |
|----------------------------|-------------|------------|
| Global EDISON Academic 학부장 | Abraham Lee |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
| 한동통일한국센터장                  | 신은주         | 국제법률대학원    |

발령일 2015.6.1

| 보직명        | 교수명 | 소속      |
|------------|-----|---------|
| 한동대 공익법센터장 | 이국운 | 국제법률대학원 |

발령일 2015.6.2

| 보직명            | 교수명 | 소속      |
|----------------|-----|---------|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 김기석 | 전산전자공학부 |

## 신임 교원

발령일 2015.3.1

| 교수명           | 소속         |
|---------------|------------|
| 김아람           | 생명과학부      |
| 김우성           | 경영경제학부     |
| 박동규           | 기계제어공학부    |
| 박종수           | 국제법률대학원    |
| 이권영           | 기계제어공학부    |
| 조혜신           | 법학부        |
| 조현지           | 글로벌리더십학부   |
| 주재원           | 언론정보문화학부   |
| 황성수           | 전산전자공학부    |
| John T. Shin  | 국제법률대학원    |
| 이윤희           |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
| Daniel Esler  | 언어교육원      |
| Chad McDonald | 언어교육원      |



## 교직원 소식

발령일 2015.4.1

| 교수명             | 소속      |
|-----------------|---------|
| David McGinley  | 국제법률대학원 |
| Alexander Banks | 언어교육원   |
| Richard Hamm    | 언어교육원   |
| Kurt Davidek    | 언어교육원   |
| 최정훈             | 교목실     |

## 직원표창

| 표창명 | 성명  | 소속    |
|-----|-----|-------|
| 공적상 | 권상석 | 총무인사팀 |
| 공적상 | 박종심 | 교무기획팀 |
| 공적상 | 이미형 | 재무회계팀 |
| 공적상 | 김현석 | 전략기획팀 |
| 공적상 | 서창석 | 시설관리팀 |
| 공적상 | 강재일 | 시설관리팀 |

## 동문 소식



## 동문기업 NIBC, Sarai Resort &amp; Spa 오픈

동문기업 NIBC(New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가 지난 2015년 4월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 호텔을 열었다. NIBC는 한동대를 졸업한 동문들이 모여 만든 회사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와 태국에 걸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NIBC는 이미 2013년부터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에 알코브(alcove) 호텔을 운영하며 동남아 시장에 새로운 호텔 카테고리인 'Value Boutique' 장르를 개척했다. 'Unique design & Affordable price' 컨셉 하에 공간환경시스템, 전산전자, 경영경제, 산업정보디자인 학부를 졸업한 동문들이 직접 기획, 설계, 인테리어디자인, 시공을 담당하였고, 다양한 여행잡지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4월 캄보디아에 오픈한 Sarai Resort & Spa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모티브로한 5성급 부티크 호텔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박해경 교수님 '대박집', 섬김의 네트워크

한동에서는 매년 팀이 바뀌면서 팀의 이름도 달라지지만 국제어문학부 박해경 교수님 팀은 2009년부터 '대박집'이란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박집 선배들은 작년과 올해의 팀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 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이기 위한 특별한 모임을 마련했다.

지난 겨울 대박집 선배들은 초대장, 포스터를 직접 만들면서 연합 모임을 마련했고, 재학생과 졸업생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추억의 게임을 하며 한동의 사명과 가치관 등을 나누었다.

06학번 문성학 동문은 연합 팀모임을 계기로 자신의 회사공간 일부를 '히즈플레이스(His Place)'라 이름 붙이고 한동인들을 위한 모임 장소로 꾸몄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떨어져있는 한동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참여 가능한 양방향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시스템인 '웨비나'도 계획하고 있다.

\* 히즈플레이스 <http://hisplace.qrsvc.com>

## 장순홍 총장 동정

- 3.3 형산강 미래포럼 선포식  
 3.6 개교 20주년 기념식  
 3.11-18 미주 지역 출장  
 (세계은행, 월드뱅크 등 주요 기관 인사 환담 및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3.20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입학식  
 3.25 포스코 청암재단 시상식 (한동대학교 교육상 수상)  
 4.13 4/14 원도우 포럼 대표회장 취임식  
 4.16 피지 외교부 장관 오찬, 피지 순교 동문 학부모 초청  
 4.24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  
 4.28 Le Tourneau 대학 총장단 방문  
 5.8-11 중국 지역 출장 (스타트업 활성화)  
 5.16 사랑의 마라톤  
 5.20 제2회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포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석)  
 5.23 개교 20주년 한동 감사의 밤  
 5.26 한동대학교-영덕군 MOU  
 5.30 제2회 한동 스타트업 경진대회  
 6.2 한동대학교-한국은행 공동주최 금융세미나  
 6.5 제 1회 경북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6.20-28 미주 지역 출장  
 (IMF 등 주요 기관 인사 면담 및 북미주CBMC대회 간증집회)  
 6.29 제7회 기독교대학 국제학술대회  
 7.10~19 에디오피아, 이스라엘 출장(자유학기제와 창업활성화방안 모색)

## 김영길 글로벌후원회장 동정

- 3.6 개교 20주년 기념식  
 3.14 경북 안동교회 집회  
 3.23 전국 학부모 기도회 총회  
 3.24 경상북도 교육청 교장단 강연  
 3.25 포스코 청암재단 시상식  
 3.30 CBMC 포천지회 설교  
 3.31~4.1 여의도침례교회 설교  
 4.4 순천기독교총연합회 간증  
 4.12, 4.19 인천 복된교회 창조과학 특강  
 4.26 개포감리교회 제자학교 간증  
 5.1 서울 송인교회 금요철야 집회  
 5.3 서울영락교회 비전특강  
 5.9 온누리교회 장로사관학교 특강  
 5.10 서울 경천교회 집회  
 5.17 대구 효목중앙교회 집회  
 5.18 SDSN-KOICA 공동주최 국제회의 참석  
 5.20 UNAI Seoul Forum 개최  
 5.23 개교 20주년 한동 감사의 밤  
 5.28 ACE 대학협의회 기조연설  
 5.28 한동대 GLS 학부 특강  
 5.31 청주 좋은감리교회 집회  
 6.21 수원온누리비전교회 집회  
 6.26-28 미국 하와이 아이에와 연합감리교회 집회  
 7.12, 7.19 미국 남가주교회 집회  
 7.13-18 미국 창조과학회 탐사 참석

김영길 글로벌후원회장 특강 및 집회 문의

한동글로벌후원회 사무소 02-3443-3232 | hguseoul@handong.edu



# 한동툰

HANDONG TOON

~ 그래, 찾아주자 ~

글그림: 채은희(산디리)





## 나의 갈대,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나의 갈대상자

GLS 학부 한동 사랑 캠페인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GLS 학부와 대외협력팀의 주최로 '한동 사랑 캠페인'이 진행됐다. 2015년 한동을 기념하여 한동의 지난 20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동인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열린 이번 캠페인은 특히 새내기 '동행의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전 학생을 위해 『갈대상자』 책을 학교 곳곳에 배치하였고, 『갈대상자』를 다시 읽음으로써 한동에 온 소망과 지금까지의 한동 생활을 돌아볼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15학번 '동행의 세대'를 대상으로는 갈대상자 독후감 공모가 열렸다. '스무살 한동 그리고 한동에서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새내기들은 한동에 오게 된 꿈에 대해 생각하거나 새롭게 세워보는 계기가 됐다. 갈대상자 독후감 우수상은 GLS학부 김다은 학생과 황현정 학생이 수상했다. 입선으로는 김미화, 오상진, 임지우, 박민준 학생의 독후감이 선정됐다. 김다은 학생은 독후감을 통해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그 시절을 보고 싶고 다시 회복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한동대가 기도로 이어 나가자기를 소망했다. 황현정 학생도 독후감에서 『갈대상자』





를 통해 지금까지 한동대가 걸어온 길을 알게 되어 “학교에 대한 근거 있는 자부심이 생겼다”며 그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노고와 정성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5월 28일 한동 오디토리움에서는 ‘21세기 한동인의 리더십’을 주제로 김영길 초대 총장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 초대 총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은혜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한동인을 통해 보이실 회복의 역사, 신트로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기간에는 한동을 사랑하는 한동천사가 되자는 의미에서 한동의 미래를 위한 후원, 갈대상자 한동천사에 참여하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㉞





## 온누리교회 권사회 러브피스트

선교사 자녀와 새터민 학생 후원

2015년 4월 28일 한동대학교 효암레스토랑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바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권사회에서 오신 15명의 권사들이 한동대에 재학 중인 선교사 자녀와 새터민 학생을 후원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학생들은 권사들에게 간증과 특송 그리고 감사 선물을, 권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예쁜 옷을 전달했고, 행사 후엔 뷔페를 통해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순홍 총장은 “우리 학교에 선교사 자녀가 200여명 가까이 된다. 선교사 자녀들은 다국어 소통이 가능하기에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들이다”며 “이렇게 귀

한 사람들이 우리 한동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교사 자녀 MK(Missionary Kids, 이하 MK) 커뮤니티 지도교수인 국제어문학부 마민호 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권사회에서 우리들을 기억하고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선교사 자녀 중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 권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큰 용기와 자신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MK 커뮤니티 대표인 박영광 학생(법, 13)은 “권사님들이 이번에도 한동대학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와 선물을 해 주셔서 감동이었다”며 “MK들을 위한 많은 사랑과 관심 또한 감사하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더욱 성장해 다른 이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동 안에 있는 MK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한동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세상에서 그들만의 달란트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하고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sup>10)</sup>





## 오순향 후원자님의 뜨개질로 전하는 사랑



안녕하세요 한동인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후원자님은 바로 오순향 후원자님이십니다. 오 후원자님께서서는 그동안 한동대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셨을 분 아니라 2013년, 2014년 한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직접 뜨개질로 조끼, 가디건, 모자, 목도리 등을 40여벌씩 떠서 선물해주셨습니다. 이후, 한국의 추위로 고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따뜻한동'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오 후원자님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좀 더 따뜻한 한동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오순향 후원자님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오 후원자님께서는 서울영락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며 해외를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활동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랜 기간 교회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여름이면 청년들과 함께 30여개국을 다니며 단기선교를 참 많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오 후원자님께서 한동대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초 김영길 초대총장님(현 한동글로벌후원회장)이 영락교회 집회에 오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김 총장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오 후원자님께 한동대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같은 교회의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갈대상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오시다 병환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 젊었을 때 단기 선교를 다니던 것처럼,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병상에서 손 뜨개질로 니트, 목도리, 스웨터, 모자 등을 떠서 한동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후원자님께 한동대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하는 점을 묻자 “한동대가 앞으로도 개교 초기의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방부제’ 같은 대학이 되길 바란다” 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누고 싶은 기도제목을 요청드리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억이 흐려지지 않고, 한동대를 비롯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큰 아픔 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것” 이라고 말씀하시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한동인들과 후원자님들께도 오 후원자님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개교 때의 한동의 정신과 순수한 복음을 잃지 않는 한동대가 되도록, 그리고 오순향 후원자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㉞





후원자 편지

## 삼십 년 넘게 가지고 있던 병풍

저는 젊었을 때 장만한 8폭의 병풍을 이사 다닐 때 마다 귀찮다 하면서도 30년 넘게 열심히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속품 경매장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집의 병풍이 생각이나 병풍을 내어 놓았더니 값으로 오십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병풍을 가지고 다니느라 애만 썼지 사용한 것은 시어머니 칠순과 팔순 때 뿐이었기에 오십만 원을 받고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병풍은 앞면은 민화그림, 뒷면은 자수로 만들어졌는데 민화 그림도 좋았고 자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오십만 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왜 그것을 팔았을까 하는 후회와, 만약 팔리지 않았으면 조금 웃돈을 주고라도 찾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경매장에 갔으나 병풍은 이미 팔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풍 값인 오십만 원으로 무엇을 하면 제가 그 병풍을 정리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예전에 안타까워하며 읽었던 ‘갈대상자’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한동대학교 후원금으로 보내는 거야!’ 저는 주저함 없이 ‘보아스’ 후원을 작성하였고, 먼저 오십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오십 만원을 조금씩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무릎연골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병원비 보다 보험금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보험금을 받게 되어 남은 보험금에서 오십 만원을 보아스 후원금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만 했는데,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란 생각에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찍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커서 결혼한 후, 제가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에 서러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매달 적은 금액이나마 한동대학교 후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재작년에는 한동대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티셔츠를 만들어 나누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이 작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동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드립니다. (H)

# 후원안내

## 갈대상자(일반기부금)

하나님께서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셨고, 훗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출2:3)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를 향한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해 한동의 갈대가 더욱 견고히 역이기를 소망합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 여호수아 장학금 (MK, PK 선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MK(Missionary Kids), PK(Pastor Kids)는 졸업 이후 부모님을 따라, 복음 전파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의 MK, PK가 한국 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신 31:23)  
이들을 응원하고 중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수아 장학금은 후원자와 1:1 매칭으로 연결되며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 중 선택 및 분할 후원 가능)  
\*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 하나은행 910-910002-68604

## 보아스(일반기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만을 가지고 낯선 곳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롯.  
하나님께서 이 굳건한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은 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의 끝에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르는 한동 믿음의 행진에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한구좌 100만원 이상)

##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 건축기금

한동대학교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꿈을 품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 글로벌 타운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따뜻한 정성과 기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곳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국민은행 640437-04-000024

## 한동 첫 열매(첫 월급)

첫열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월급 기부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첫 마음과 수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은 자신이 그러하였듯 후배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부금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대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갈대상자 및 보아스 기부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 후원가입·정보변경·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발전기금과 세금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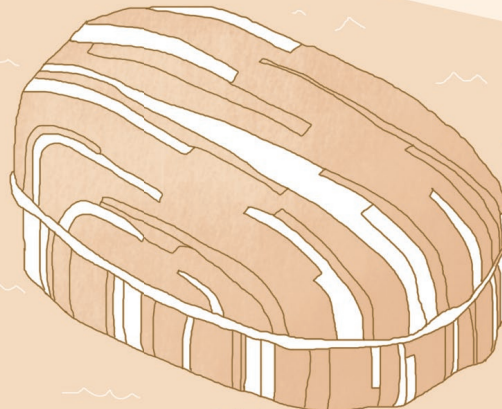
##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mailto: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 [ksc@bskb.com](mailto:ksc@bskb.com)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전화: 02-3443-3232  
팩스: 02-3446-3939  
E-mail: [hguseoul@handong.edu](mailto:hguseoul@handong.edu)



# 신규 기부자 명단

2015.1.1 ~ 2015.6.30 전체 557명

|         |     |         |     |         |     |      |         |     |         |         |     |           |
|---------|-----|---------|-----|---------|-----|------|---------|-----|---------|---------|-----|-----------|
| 강나단     | 김룡  | 김영화     | 김진현 | 박대진     | 방준민 | 신종혁  | 유경상     | 이덕형 | 이종배     | 장관우     | 조원희 | 한국재       |
| 강미현     | 김만호 | 김예숙     | 김찬원 | 박미정     | 방청록 | 신지은  | 유복희     | 이도길 | 이종숙     | 장성빈     | 조은숙 | 한단비       |
| 강상훈     | 김명옥 | 김예원     | 김찬호 | 박민애     | 배대건 | 신지현  | 유봉석     | 이동우 | 이종진     | 장하은     | 조현봉 | 한병길       |
| 강수정     | 김문성 | 김예지(95) | 김철진 | 박상미     | 배미화 | 신항철  | 유상문     | 이동하 | 이종화     | 장희정     | 조현옥 | 한선교       |
| 강신범     | 김미행 | 김예지(96) | 김초원 | 박상희     | 배소명 | 신해슬란 | 유영아     | 이명규 | 이종훈     | 전경호     | 조해인 | 한승우       |
| 강영주     | 김미화 | 김예지(96) | 김태수 | 박성령     | 배수한 | 심규석  | 유은수     | 이명수 | 이주완     | 전경희     | 주영은 | 한예은       |
| 강웅식     | 김민규 | 김옥주     | 김태형 | 박성학     | 배아람 | 심나영  | 유익성     | 이미숙 | 이지행     | 전남분     | 지영희 | 한지영       |
| 강유경     | 김민식 | 김요환     | 김평강 | 박성휘     | 배은정 | 심승보  | 유재은     | 이봉은 | 이진권     | 전성우     | 진경찬 | 한지혜       |
| 강은국     | 김복임 | 김용국     | 김하경 | 박세나     | 배은진 | 심원   | 유종갑     | 이상신 | 이찬미(90) | 전여훈     | 진승혜 | 한창술       |
| 강재연     | 김상숙 | 김용석     | 김하영 | 박수민     | 백상민 | 심지현  | 유채우     | 이상옥 | 이찬미(95) | 전제상     | 진찬영 | 한태민       |
| 강주혜     | 김상준 | 김용연     | 김하은 | 박수현     | 변성화 | 안명희  | 유한결     | 이석근 | 이찬영     | 전채리     | 진해은 | 허규진       |
| 강철희     | 김서연 | 김용주     | 김한수 | 박승옥     | 변승덕 | 안병란  | 유한나(63) | 이성수 | 이찬우     | 전혜순     | 차금석 | 허윤봉       |
| 강춘희     | 김선자 | 김윤수     | 김해서 | 박승희     | 변현승 | 안병미  | 유한나(96) | 이성용 | 이철진     | 정경단     | 차기선 | 허재원       |
| 강태근     | 김성국 | 김윤정     | 김해연 | 박영기     | 봉은준 | 안영국  | 유혜원     | 이성훈 | 이충실     | 정미영     | 차수범 | 허진호       |
| 강하영     | 김성모 | 김은서     | 김현경 | 박예림     | 서규정 | 안제인  | 유효선     | 이송현 | 이충호     | 정미현     | 채순자 | 현종주       |
| 고선탁     | 김성배 | 김은수     | 김현우 | 박용길     | 서상용 | 안제현  | 윤가영     | 이수진 | 이하경     | 정성민     | 채주희 | 홍서빈       |
| 고은선     | 김성숙 | 김은숙(58) | 김현지 | 박원빈     | 서예은 | 안중은  | 윤기열     | 이수현 | 이하나     | 정수빈     | 천인화 | 홍선기       |
| 곽미현     | 김성연 | 김은숙(58) | 김현진 | 박유진     | 서용하 | 안철준  | 윤미임     | 이숙  | 이향원     | 정순옥     | 최경옥 | 홍선희       |
| 곽민우     | 김성은 | 김은실     | 김형길 | 박은하     | 서주희 | 안하은  | 윤소정     | 이숙란 | 이혁인     | 정시은     | 최경희 | 홍성은       |
| 곽지수     | 김성하 | 김인철     | 김형도 | 박이레     | 서진명 | 안혜경  | 윤익종     | 이순하 | 이혁재     | 정예겸     | 최기옥 | 홍순규       |
| 구자환     | 김성혜 | 김인환     | 김형일 | 박인애     | 서찬술 | 안혜미  | 윤종민     | 이승용 | 이현섭     | 정예인     | 최다운 | 홍순영       |
| 권기삼     | 김세민 | 김재곤     | 김해민 | 박정란     | 서창석 | 안홍준  | 윤종복     | 이승현 | 이현진     | 정예진     | 최돈식 | 홍시온       |
| 권기선     | 김세준 | 김재명     | 김해진 | 박정빈     | 서한일 | 양기영  | 윤춘근     | 이시온 | 이형근     | 정일석     | 최상연 | 홍연희       |
| 권빛나     | 김소연 | 김재원     | 김호순 | 박정완     | 석호수 | 양범주  | 윤하은     | 이신은 | 이혜령     | 정재형     | 최성규 | 홍예린       |
| 권성현     | 김소중 | 김재홍     | 김환태 | 박정자     | 성해욱 | 양수석  | 윤하지     | 이아름 | 이혜목     | 정재홍     | 최영란 | 홍유빈       |
| 권준성     | 김소진 | 김정림     | 김훈상 | 박종화     | 손윤희 | 양인정  | 윤현주     | 이열호 | 이혜인     | 정종호     | 최영주 | 홍재정       |
| 금영수     | 김수연 | 김정수     | 김희락 | 박주원     | 손하민 | 양정미  | 윤혜주     | 이영래 | 이호선     | 정주희     | 최요한 | 홍한나       |
| 김강석     | 김수환 | 김정순     | 김희수 | 박준혁     | 손혜원 | 양태용  | 윤희진     | 이영춘 | 이효진     | 정진영     | 최용준 | 홍혜연       |
| 김경현     | 김숙연 | 김종덕     | 나병천 | 박지양     | 송사랑 | 엄세령  | 은민규     | 이예랑 | 임규희     | 정진혁     | 최원영 | 황다정       |
| 김경협     | 김승리 | 김종영     | 나종식 | 박지윤(95) | 송선덕 | 엄영길  | 은희준     | 이예린 | 임다슬     | 정찬미     | 최유미 | 황종식       |
| 김광섭     | 김승범 | 김종찬     | 노숙경 | 박지윤(96) | 송수근 | 엄현상  | 이가은     | 이예솔 | 임브리엘    | 정창옥     | 최은서 | 황현정       |
| 김권서     | 김승준 | 김주은     | 노영인 | 박지화     | 송영목 | 오명훈  | 이가현     | 이웅교 | 임성근     | 정철      | 최종경 | Eric Kwon |
| 김기훈     | 김승희 | 김주하     | 류영훈 | 박진현     | 송요한 | 오승현  | 이강곤     | 이유림 | 임성빈     | 정철민     | 최주연 | KIAA      |
| 김남호     | 김승훈 | 김주현     | 류한동 | 박창조     | 송유진 | 오영석  | 이경순     | 이유지 | 임성애     | 정학준     | 최주희 | 대전홀리클럽    |
| 김누리     | 김신자 | 김준기     | 목하균 | 박철호     | 송하나 | 오예린  | 이경인     | 이은실 | 임소현     | 정혜민     | 최지선 | 성광교회      |
| 김다은(96) | 김양수 | 김지민(96) | 문남의 | 박초원     | 송한별 | 오준석  | 이경희     | 이은희 | 임영목     | 정홍룡     | 최한울 | 시온전기      |
| 김다은(96) | 김영대 | 김지민(96) | 문소망 | 박태웅     | 신경숙 | 우선주  | 이광로     | 이의현 | 임영태     | 조다은     | 최혜연 | 은광유통      |
| 김대용     | 김영옥 | 김지윤(94) | 문원우 | 박하은     | 신기영 | 우제성  | 이광식     | 이재성 | 임완섭     | 조명숙     | 최효철 | (주)국민은행   |
| 김대우     | 김영재 | 김지윤(96) | 문종옥 | 박혜경     | 신동륜 | 우태제  | 이기원     | 이정은 | 임윤성     | 조미현     | 최희철 | (주)뉴피에스   |
| 김대윤     | 김영진 | 김지현     | 문주혜 | 박혜빈     | 신수호 | 우현덕  | 이기주     | 이정필 | 임종식     | 조사무엘    | 표현빈 | (주)창조플랜   |
| 김도엽     | 김영철 | 김지현     | 문춘애 | 박환수     | 신영조 | 원명구  | 이다원     | 이정호 | 임지우     | 조성진(67) | 하기수 | 홈플러스(주)   |
| 김동겸     | 김영춘 | 김지훈     | 민규동 | 반두자     | 신영지 | 원영희  | 이대식     | 이정화 | 임형빈     | 조성진(77) | 하민지 |           |
| 김동주     | 김영호 | 김진숙     | 박다은 | 방주안     | 신인숙 | 유가은  | 이대전     | 이정환 | 임혜재     | 조예신     | 한광영 |           |





|  |  |  |  |  |
|--|--|--|--|--|
|  |  |  |  |  |
|--|--|--|--|--|

3 7 5 5 4

이수민을 이(의)아(남)이(女) 후 공민을 이(의)아(남)이(女)라 하며 조세와 법률을 공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 [문답호(公民호)]

# 후원신청서

## 후원자정보

|             |                                                                                                                                                                                                                            |                        |  |
|-------------|----------------------------------------------------------------------------------------------------------------------------------------------------------------------------------------------------------------------------|------------------------|--|
| 성명[기업명/대표자] |                                                                                                                                                                                                                            | 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 연락처         | 주소                                                                                                                                                                                                                         |                        |  |
|             | 전화                                                                                                                                                                                                                         | 휴대전화                   |  |
|             | E-mail                                                                                                                                                                                                                     | 출석교회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일반인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자녀성명/학번: )<br><input type="checkbox"/> 동문(학번: ) <input type="checkbox"/> 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기부금영수증

|                                                                                              |
|----------------------------------------------------------------------------------------------|
| <input type="checkbox"/> 미발행                                                                 |
| <input type="checkbox"/> 발행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약정정보

|       |                                                                                                                    |                                                                                                                                                                                                                       |                                 |                                        |
|-------|--------------------------------------------------------------------------------------------------------------------|-----------------------------------------------------------------------------------------------------------------------------------------------------------------------------------------------------------------------|---------------------------------|----------------------------------------|
| 후원금액  | <input type="checkbox"/> 일회 원                                                                                      |                                                                                                                                                                                                                       | <input type="checkbox"/> 정기 월 원 | <input type="checkbox"/> 약정 원( 회, 각 원) |
| 후원종류  | 용도 미지정                                                                                                             | <input type="checkbox"/> 갈대상자(일반) <input type="checkbox"/> 보아스(고액일반)                                                                                                                                                  |                                 |                                        |
|       | 용도 지정                                                                                                              | <input type="checkbox"/> 여호수아 등록장학금(MK·PK선교, 1년 600만원) <input type="checkbox"/> 여호수아 생활장학금(MK·PK선교, 1년 120만원)<br><input type="checkbox"/> 팀워크(교육선교) <input type="checkbox"/> 건축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정기부금( ) |                                 |                                        |
| 기부자예우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br><small>예우선물, 홍보책자 및 이메일, SMS수신, 기부자 명단 게재</small> |                                                                                                                                                                                                                       |                                 |                                        |

\*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갈대상자 및 보아스 후원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는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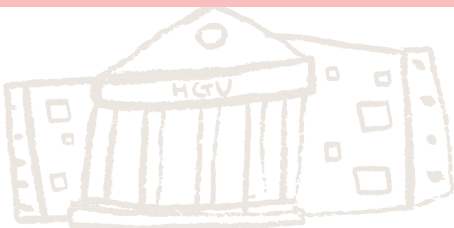
|                                     |                                                                                                                                                                                                                                        |                            |
|-------------------------------------|----------------------------------------------------------------------------------------------------------------------------------------------------------------------------------------------------------------------------------------|----------------------------|
|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CMS) |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3일                                                                                                                                                                          |                            |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예금주 생년월일<br>[사업자등록번호]                                                                                                                                                                                                                  | 예금주명<br>*후원신청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함 |
|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 갈대상자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한동대학교<br>보아스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학)한동대학교<br>팀워크 하나은행 518-910023-11205 한동대학교<br>건축기금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대학교<br>첫열매, 지정기부금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br>여호수아 장학금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대학교여호수아 |                            |

※ 약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동의가 필요합니다. 뒷면을 읽어보시고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 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학)한동대학교 이사장  
한동대학교 총장 귀하





# 꿈을 가진 사람들

꿈

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껏 꿈꾸어보지 못한 새로운 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한동대학교는 그 꿈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을 얹고,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장을 얹고...

이방 민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그 사회 속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지도자가 됨으로

훼손된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한동인은 벽돌을 얹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은 또 하나의 대학으로 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과 학문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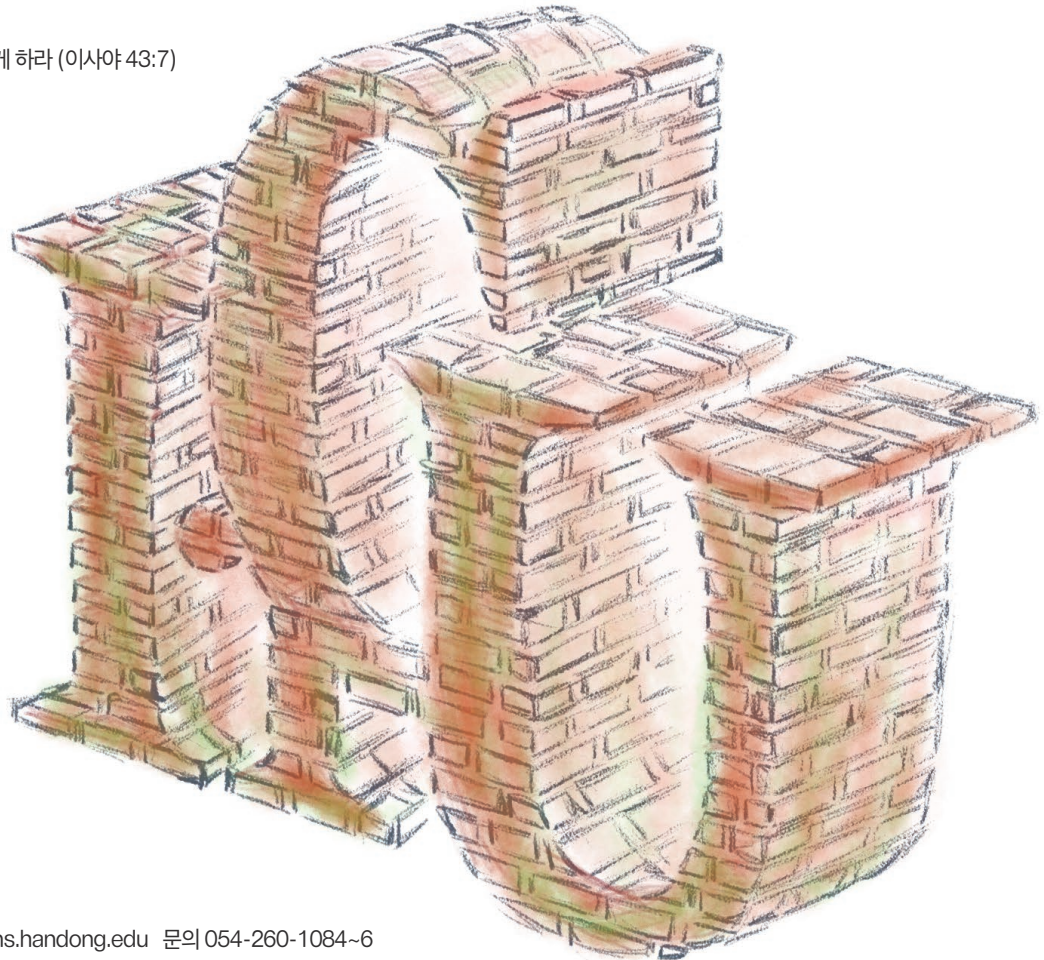
아직 꿈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벽돌 한 장을 얹을 새식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비전에 동참할 모든 이들을 한동대학교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7)



한동대학교 홍보영상 QR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issions.handong.edu> 문의 054-260-1084~6

후원안내 홈페이지 <http://sarang.handong.edu> 문의 054-260-1063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